

12-19-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이사야 9:1-7

본문: 누가복음 1:26-56

제목: 크리스마스와 크리스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휴일(Holiday=Holy Day?)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연 중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는 것을 본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날을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최상의 날의 아니고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하여 경찰 기록이나 신문들을 통해 충분한 증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절도, 살인, 증오범죄. 자살, 알콜중독, 음주운전, 정신장애로인한 스트레스, 사고, 죽음 등등 우리는 매년마다 듣고 보면서 살아왔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년중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Christ Mass). 12 월 25 일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며 오히려 이 날은 바벨론 종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계절은 우리 달력으로 9-10 월 경인 가을철이다. 이 사실은 성경말씀과 1 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사실, 크리스마스와와 관련된 크리스마스 추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굳게 서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렘 10:1-5)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태어나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실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눅 1:32,33)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한 마리아에게 그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베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눅 1:35-37)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살전 2:13)이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즉시 잉태하셨으며 그후 황급히 가서 사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증명하신 것이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의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눅 1:42,43)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분 안에서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의 양자들로 택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엡 1:4,5) 이사야 등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도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3,14)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의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사 9:2,6,7)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되신 신비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분명하게 증거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가운데로 들려올라가셨음이라.”(딤펴전 3:16)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죄인들과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만 하시면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모든 죄인들을 바보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죄인들이 지혜롭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은 하루 아침에 자신들이 바보임을 고백하면서 불뚱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제 예수님은 아기도 아이도 아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그분의 왕국을 인수하시기 위하여 조만간 오실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시기까지 이천여 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진리이신 자신을 믿을 것을 많은 종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안으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영적전쟁을 해야만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는 것이라.”(마 10:34-39)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메세지를 전했다: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눅 2:10-12) 그때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찬양하여 말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눅 2:14)

이제 조만간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시는 일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엡 1:10).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아기도 아이도 나사렛 청년도 아니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휴거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실 것이다. 이때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 아말겟돈 전쟁을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날에 관하여 증거했다: “이는 주께서 그의 집의 명예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라.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런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사 9:4,5)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침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후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아멘, 그러하옵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모든 증거를 끝낸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이라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끝을 맺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사람의 열매는 생명나무임을 깨닫고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하게 되어 (잠 11:30)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단 12:3) 할렐루야!

12-19-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Isaiah 9:1-7

Main scripture: Luke 1:26-56)

Subject: **Christmas and Christian**

In the season of Christmas, not only Christians, but also non-Christians are enjoying Holiday (Holy Day?) considering it the most joyful day. But we, Christians must think seriously again how our Lord Jesus in heaven considers this day.

In fact, Christmas has become the worst day, not the best day. As for Christmas time being nicest time of the year, police records and newspaper archives give ample evidence to the opposite. On all account: thefts, murders, vandalism, suicides, domestic disputes, financial woes, alcoholism, drunk drivers, stress related mental disorders, accidents, deaths: Christmas is the worst time of the year. Christmas has become the day of killing Jesus Christ (Christ Mass) literally. December 25 is not the day of the birth of Jesus; it is originated from the religion of Babylon. The season of the birth of Jesus is autumn (September to October) in our calendar according to the scripture and Josephus, a historian in the first century.

As a matter of fact, Christmas tree related to Christmas is originated from the religion of Babylon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e LORD God spoke to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prophet Jeremiah:

"Hear ye the word which the LORD speaketh unto you, O house of Israel: Thus saith the LORD, Learn not the way of the heathen, and be not dismayed at the signs of heaven; for the heathen are dismayed at them. For the customs of the people are vain: for one cutteth a tree out of the forest, the work of the hands of the workman, with the axe. They deck it with silver and with gold; they fasten it with nails and with hammers, that it move not. They are upright as the palm tree, but speak not: they must needs be borne, because they cannot go. Be not afraid of them; for they cannot do evil, neither also is it in them to do good."(Jer. 10:1-5)

Gabriel, the angel of God spoke of the purpose of the birth of Jesus through the womb of Mary very clearly: **"And the angel answered and said unto her, The Holy Ghost shall come upon thee, and the power of the Highest shall overshadow thee:**

therefore also that holy thing which shall be born of thee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And, behold, thy cousin Elisabeth, she hath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this is the sixth month with her, who was called barren.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Luke 1:35-37)

Mary received the word of God by faith; and the word of God worked effectively in her faith (1Thes. 2:13) was conceived right away in the body of Mary. When Mary went to Elisabeth with haste, the Lord proved her conception through the mouth of Elisabeth: **"And she spake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And whence is this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Luke 1:42,43)**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God had planned to send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earth; and to choose them that believe in him; and to choose them to adopt his holy and blameless sons (Eph. 1:4,5). The LORD God had foretold of this through prophets as Isaiah and so on:

And he said, Hear ye now, O house of David; Is it a small thing for you to weary men, but will ye weary my God also? Therefore the Lord himself sha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Isa. 7:13,14)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ey that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hath the light shined....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with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 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Isa. 9:2,6,7)

Apostle Paul understood the mystery of incarnation of God as the mystery of godliness, and testified clearly: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1Tim. 3;16)

Yes! God doesn't have to debate with men of God that became a man in the name of Jesus, for he can make all the sinners fools by making a virgin gives a birth to a son. Now the unbelieving sinners may think themselves wise thinking all the believing Christians as fools. When the day comes, all the sinners in the world shall confess that they are real fools, and jump in the lake of fire.

Yes! Jesus is neither a baby nor a child anymore, but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he shall come to the earth to take it over sooner or later. The Lord Jesus has given grace unto all for two thousand years; he has given enough time for them to believe on him, the truth through the prophets in the Spirit. He also asked them to pass through the spiritual warfare with the truth from within the household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o see the king of peace: **“Think not that I am come to send peace on earth: I came not to send peace, but a sword. For I am come to set a man at variance against his father, and the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the daughter in law against her mother in law. And a man's foes shall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He that loveth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that loveth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that taketh not his cross, and followeth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He that find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loseth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Matt. 10:34-39)**

In the night when Jesus was born, Gabriel, the angel of God unto the shepherds in the midst of sheep to give the news of the birth of Jesus, and gave them a message: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Luke 1:10-12) Then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Luke 2:14)**

When the time is fulfilled, we shall see with our eyes that God himself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Eph 1:10). Now he is neither a baby, nor a child, nor a young man in Nazareth anymore; but he is coming to the earth to take over the earth with his brides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Prophet Isaiah testified of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appearing in the war of Armageddon:

“For thou hast broken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of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as in the day of Midian. For every battle of the warrior is with confused nois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but this shall be with burning and fuel of fire.”(Isa. 9:4,5)

Apostle John the writer of the last book of Revelation testified of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at shall reign in the earth; and continued to write the word of the Lord Jesus saying,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And he finalized the book of Revelation with an invitation to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saying,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Rev. 22:20,21)**

Yes! Even this momen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s still preached unto all men. In the day of grace,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of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s Apostle John did. Whosoever receives this grace to be born again understand that his fruit is the tree of life; and can win the souls unto Christ to be wise (Prov. 11:30). Then they shall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ey that turn many to righteousness as the stars forever and ever (Dan. 12:3) Hallelujah!